



제주경찰 피의자 검거율 3년 연속 ‘상승세’

지난해 4분기 기준 제주 80%… 전국평균은 76.4%
2023~24년도 동기대비 강력범죄 검거율은 하락세

제주경찰의 형사사건 발생에 따른 피의자 검거율이 4분기(10~12월) 기준, 최근 3년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지난 3년간 역행해 하락세를 보였다.

19일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별 범죄통계인 ‘최종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경찰청의 피의자 검거율은 4분기 기준 ▷2023년 75.1%(76.4% 이하 전국평균 생략) ▷2024년 79.0%

(75.5%) ▷2025년 80.0%(76.4%)를 기록했다. 제주가 줄곧 상승했으나, 이 기간에 전국평균은 다소 부침이 있었다.

해당 통계는 2023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3종(발생·검거·피의자)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료에 근거해 작성한 자료다. 치안정책 수립과 최근 범죄동향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대 범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민감정보 항목을 삭제해 반영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형사사건 6814건 가운데 5448건을 처리했고, 5408명(법인체 26곳 별도)을 검거했다. 앞선 3분기(7~9월) 실적인 사건 발생 7741건, 검거 6359건, 검거인원 5939명(법인체 20곳 별도)에 견줘 양적으로 줄었으나, 검거율에선 앞선 결과를 냈다. 3분기는 여름휴가철이 끼어 있어 유입인구에 따른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기간이다.

4분기 기준, 지난해 제주의 최종별 검거율은 강력범죄 83.0%(93.1% 이하 전국평균 생략), 절도범죄 73.2%(66.6%), 폭력범죄 85.6%(90.2%), 지능범죄 66.9%(60.3%), 풍속범죄 86.8%(88.8%), 특별경제

범죄 98.8%(74.8%), 마약범죄 95.0%(93.0%) 등이었다. 특히 절도범죄 검거율은 2023년 61.2%, 2024년 65.8%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강력범죄 검거율은 2023년 93.3%, 2024년 92.2%에 견줘 낮아졌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과 방화 사건 등에 관한 검거율이 낮아 결과에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제주에서 검거한 5408명 가운데 교통범죄 관련이 1285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등 지능범죄범이 1029명(1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해 등 폭력범 935명(17.3%), 절도범 382명(7.1%), 특수경제범 350명(6.5%) 등이다. 백금탁기자

신속 구조 위한 ‘어선 선저 절단 표식’ 지원

제주시, 올해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 분야 총 566억 투입

제주시가 올해 처음 ‘어선 선저 절단 표식’ 지원 사업에 나선다. 선저 절단 표식은 어선 외부 바닥에 선저 침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로, 어선 전복 시에 이 부위를 절단해 구조 통로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제주시는 이같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모두 198개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올해 566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모두 31건으로, 어선 선저 절단 표식 사업을 비롯해 연근해어선 물땃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근해어선 물땃 설치의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배가 흔들리다 뒤집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현장

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패조류 투석 등 풍요로운 어촌 실현에 118억원(52개 사업)이 투입된다. 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등 조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58억원(26개 사업)이 책정됐다. 이외에 어가 경영 안정(46억원), 도서지역 균형 발전(111억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청정 바다 조성(139억원), 특색 있는 어촌·어항 조성(94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올해 해양수산 분야 예산편성의 핵심은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5건, 추자 인도교·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외국인 3명 잇따라 폭행
경찰, 40대 입건 조사 중

외국인 3명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소재 버스과 버스정류장에서 외국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홀로 좌석에 앉아 있던 호주 국적 20대 여성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어 정오쯤에는 안덕면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60대 남성을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고, 오후 1시 40분쯤에는 대정읍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20대 여성을 어깨로 치고 이마를 손으로 때렸다.

폭행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제주시 소재 A씨 모친의 가게에서 A씨를 발견해 입의 동행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무거운 수레 함께 밀어주는 청년들 1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의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재활용품이 가득 실린 한 어르신의 수레를 청년들이 함께 밀어주고 있다.

제주대 미용대 기금교수 고용 논란 국회로
교수·학생 등 20일 국회의원사당 시위·국회의원 면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학성인학습자연구교류협의회 소속 교수 142명이 국회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

위에 평생 교육 체계 점점 및 책임 있는 조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국가 평생교육 사업이 LIFE(라이프)에서 RISE(라이즈)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금교수 강제 면직, 계약교수·시간강사 중심의 인력체제 전환, 교육과정 축소 등이 이뤄지면서 재학 중인 성인학

습자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융합대학 교수·학생·동문회는 지난 12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미래융합대학 교수·학생·동문회는 19일 청와대 방문 민원 접수와 피켓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국회의원사당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본격화”

자치경찰, 교통시설물 이력 DB 구축 등 사업 착수

16억 투입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노후시설 정비

제주자치경찰이 올해 제주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6년을 ‘제주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도내 교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1129개 전체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기·경보등·음향신호기 등 교통 부대시설물의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생애주기를 분석해 시설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유형과 구간 특성, 도심·외곽 여건에 맞는 교통시설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선정해 최적의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신규 설치 및 노후 교통시설 정비에 16억원을 투입한다.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기준 미설치된 31개소 가운데, 교통신호기 5개소와 경보등 18개소

를 신대로·변영로·신서귀로·태평로 등 교통수요가 높은 구간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교통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8억5000만원을 들여 노후 교통신호기 3개소와 맨홀 83개소를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태풍과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시설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응급복구와 교통환경 정비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각장애인인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359개소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1690대에 대해 사물인터넷 기반 이상 감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9000만원을 투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일반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량이 많은 1개소에 바닥신호기를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3~4개소에 통합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감굴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도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도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굴,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